

요한 1 서 묵상 15
(9/5/2020, 토)

찬양: 455(507)(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3:17-22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의 실천과 그것의 결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18 절 -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 실천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앞서 먼저 17 절을 통해 실천하는 사랑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17 절 -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의 뜻은, 일용할 양식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요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7 절은 우리로 하여금 당시 교회 내에 삶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은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와 줄 마음”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과 연민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닫으면 안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된 사랑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18 절)라고 권고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약 2:15-17 -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말은 있고 실천이 없을 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말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에서 “행함”은 성도로서 나타내야 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진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바른 도덕적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바른 행위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사랑으로 가장한 최악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을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기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 실천의 결과. 19 절 이하에서는 사랑 실천의 결과를 언급합니다. 19 절 -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은 14 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였는데, 19 절에서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을 드러냅니다. 아울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하고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실천을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당연한 모습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20 절에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라고 했고, 21 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을 때 얻는 책망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거리낌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책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20 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 **21 절 -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때의 담대함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22 절 -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22 절)**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2. 오늘도 마음 중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그 교통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